

파견기간	25년 4월~8월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19-17837
파견국가	일본		소 속	건설환경공학부
파견대학	와세다 대학교		성 명	김보근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저는 글로벌 감각을 키우고 전공 분야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고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 직접 현지에서 학문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학문적·개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와세다대학교는 일본 내에서도 국제화가 잘 되어 있는 대학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관심 있는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어, 학문적 역량을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와세다대학교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교로,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교환학생으로서 학업과 생활에 적응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교는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현지에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선택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학문적 기회뿐 아니라 문화적 경험, 네트워크 확장 등 다방면에서 유익한 교환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와세다대학교는 다양한 학부와 연구소를 보유한 종합대학으로, 교환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국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업은 영어와 일본어로 병행 제공되며,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도 충분히 수강 가능한 과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캠퍼스는 도쿄 시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현지 학생 및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도쿄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국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외국인 학생이 생활하기에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예술, 대중문화 등 다양한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교환학기 동안 풍부한 문화적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외교부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 사무실 목록이 있습니다. 집과 가까운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후 기다리면 됩니다. 추가로 COE 라는 서류를 와세다 측에서 보내주는데, 비자 신청할 때

출력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숙소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3 가지입니다. 직접 방을 계약/와세다 직영 기숙사 지원/와세다 추천 기숙사 지원. 와세다 추천 기숙사는 학교에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업체들이 운영하는 기숙사들 중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와세다 직영 기숙사의 경우 학교측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기한에 맞추어 지원하시면 됩니다. 와세다 직영 기숙사는 크게 3 개 있는데, 제일 낙후된 기숙사는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3 군데는 위치가 학교와 가깝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에 합격확률이 낮습니다(와세다 피셜 30%이하).

따라서 기숙사 추첨에 지원한 이후, 미리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집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진 뒤, 학교에서 추천한 업체들 중 하나와 계약을 해서 생활했습니다.

3. 기타 유용한 정보

학교와 가까운 방들은 가격도 비싸지만, 대부분 1 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비싸든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음에도, 6 개월 교환학생의 경우 계약해주지 않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서울대학교와 달리 장바구니에 넣은 뒤 정원이 넘치는 강의는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매주 수강신청기한이 있으며, 총 3 차 수강신청까지 있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교양)Japanese Gardens - 일본의 정원에 대해 배웁니다. 도쿄 내 유명한 일본정원들을 수업시간에 전철을 타고 수강생들이 견학하러 갑니다. 로드도 적고 교수님이 정원 팸플렛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인상깊었습니다.

(교양)Topics of Social Sciences -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 간략히 배웁니다. 저는 사회과학에는 큰 흥미가 없지만, 이 수업의 진가는 매주 작성하는 에세이와 영문서적 리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 3 명의 학생이 교수님과 1 주일에 100 분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의 참여를 계속 요구하셔서 1 학기 동안 speaking, reading, writing 모두 크게 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본 교수님들과 달리, 영어로 매우 잘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Hydraulics B - 건설환경공학부 학생이시라면 추천드립니다. 학부 때 배우는 수자원공학과 비슷합니다. 과제와 출석점수가 없어, 오직 2 번의 시험만 잘보면 됩니다. 시험 난이도는 쉽습니다.

(전공)Resources Refining and Separation - 환경공학의 심화버전입니다. 유기오염물질의 흡착, 철광석 제련 등에 대해 다룹니다. 관심있으시면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학습 방법

전반적으로 매우 널널한 편이며, 오픈북 OX 퀴즈 형태의 전공시험도 있습니다. 교양의 경우 출석반영이 전체성적의 60%인 과목 등 편안한 과목들이 많습니다. 와세다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milestone 이라는 이름의 책에서 꿀강이나 동아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학벌주의가 조금 더 심하고, 대학교 때 학점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대신 남은 시간에 학생들은 동아리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업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수업의 평가방식이 절대평가인 것들이 많고, 평가 기준도 널널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4 학년 과목 위주로 수강하면 됩니다. 와세다 대학 4 학년생은 1 년간 한 연구실에 소속되어 개별연구를 진행하는 커리큘럼이기에, 4 학년 전용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면 2,3 학년 수업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현지에서 친구를 사귀어 대화를 많이 하면 빠르게 느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학교측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또한 CJL 이라는 곳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일본어 강의를 진행합니다. 레벨에 맞추어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기 때문에 실력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면 됩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부피가 큰 것들은 현지의 100 엔샵에서 사면 됩니다.

돈키호테의 경우 지점장이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라 지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시부야/신주쿠의 돈키호테는 같은 물건이라도 500 엔씩 더 비쌉니다. 돈키호테보다는 Seria 나 livin 같은 곳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전반적으로 한국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는 같은 물품이어도 편의점보다 10 엔 정도 쌉니다(ex 감자칩의 경우 세븐일레븐에서 230 엔, 마트에서 98 엔이었습니다). 식재료를 살 때는 동네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와세다 대학교 이공캠퍼스의 학생식당은 점심시간에 매우 혼잡합니다. 푸드트럭들이 몇 개 존재하지만,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학교 정문 맞은편에 일본정식집이 맛있고, 10 분 정도 더 걸어서 타카다노바바역 근처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쿄는 전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정기권을 구매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이부신주쿠 선은 6 개월 교환학생의 경우 학생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단기거주자로 분류되어 해당사항없음), 직장인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니 1 달에 왕복 20 회 이상 타야 금전적으로 이득이니 잘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저는 도쿄 도심관광을 자주 했습니다. 크게 신주쿠, 시부야, 니혼바시 3 군데를 주로 방문했습니다.

신주쿠는 술집과 관광객이 많으며, 밥집은 시부야에 맛집들이 더 분포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니혼바시는 음식의 질이 좋은만큼, 가끔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시부야 근처 맛집탐방을 추천드립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일본은 지진이 많다고 해서 출국 전 걱정했으나, 저는 1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철이 혼잡한 시간대(오후 7 시정도)는 피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늦은 밤에는 도쿄라 하더라도 무서운 사람들이 가끔 보여서, 관광객이 많은 곳 위주로 다니면 좋을 듯 합니다.

6. 기타 유용한 정보

방을 구할 때에는 가능한 25 년내에 지어진 철근콘크리트 건물 위주로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